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2023. 6. 29. 목 오후 2:00

포항오천교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85번길 8

- 주최_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웅,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_ CTS기독교TV(CTS 포항방송)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2023.6.29. 목 오후 2:00

포항오천교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85번길 8

■ 주최_ 포항성시화운동본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 이철, 이순창, 권순용, 김태영, 장종현, 오정현 | 본부장 감경철)

■ 후원_ CTS기독교TV(CTS 포항방송)



본 자료집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행사 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프로그램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기 도] 조관호 장로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부회계, 기쁨의교회)

14:00 **1부 개회** 사회 김형진 목사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예담교회 담임)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 회장)

[환영사] 박성근 목사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격려사] 박석진 위원장 (포항 출대본, 포항장성교회 담임, 포항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축 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광 고] 변창배 운영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 부사장)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14:20 [발표①]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14:40 [발표②]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아동돌봄 정책 방향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15:00 [발표③] 저출생 시대의 지자체의 아동돌봄 정책(사례중심)
김민정 의원 (포항시의회)

15:20 [발표④]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 돌봄역할
정예용 과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Q & A 토크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CONTENTS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1부 개회 사회 김형진 목사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예닮교회 담임)

- 09 [개회사] 감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 회장)
 - 11 [환영사] 박성근 목사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 13 [격려사] 박석진 위원장 (포항 출대본, 포항장성교회 담임, 포항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 15 [축사] 이강덕 포항시장
 - 17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 21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2부 세미나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 25 [발표①]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 35 [발표②]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아동돌봄 정책 방향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55 [발표③] 저출생 시대의 지자체의 아동돌봄 정책(사례중심)
김민정 의원 (포항시의회)
- 69 [발표④]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 돌봄역할
정예용 과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Q & A 토크쇼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개회사

—

환영사

—

격려사

—

축사



01

개회사



김경철 본부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CTS기독교TV회장)

안녕하십니까. CTS기독교TV의 김경철 회장입니다.

삶으로 행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실천 운동 단체인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우리 시대 중요한 현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바로 돌봄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행사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오늘날의 시대를 저출생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시대는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파멸적인 결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소멸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는 지자체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북은 구미시와 경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즉, 오랜 시간 나라의 동력이 되어온 위대한 공업도시이자 인구 50만의 대도시인 포항시조차도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혹한 현실에 맞서 지금부터 우리는 돌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꼭 돌봄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돌봄 문제는 저출생 시대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경쟁이 극심해지고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된 시대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해야 남들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돌봄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문제가 저출생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돌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돌봄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만, 저출생으로 인하여 돌봄 네트워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을 통하여 자세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려움은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왔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면 당면한 저출생과 지방 소멸의 위기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열리는 '저출생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이 새로운 미래의 출발점이 되길 소망하면서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박성근 목사
(포항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삶과 시대의 위기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환경생태위기 등은 언제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모이게 만든 저출산의 위기는 모든 위기 가운데 위기입니다. 절대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른 위기보다 실제적 문제의식은 오히려 열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회피하고 미루려는 의식이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위기를 대응하는 것 중에 방법과 자세 등이 중요하지만 위기대응의 시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시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제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출산의 문제는 시급하다는 소리자체가 아닐함입니다. 모두가 어떤 가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을 무릅 쓰고라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팔을 걷었습니다. 교회의 핵심과업은 영혼구원의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는 영혼구원의 문제와 동일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서 생명이 단절된다면 교회 또한 의미를 잃어버린 텅빈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모임이 깊은 문제의식과 행동지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추수를 위해 우리 각자가 할 바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런 인식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드신 CTS기독교TV와 오늘 이자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격려사



박석진 위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 포항본부, 포항장성교회 담임,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포항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저출생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현재 역대 최저인 0.78명대로 떨어진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국가는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보지만 나름대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기독교계가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너무나 귀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곳 이 자리에서 당장 모든 답을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귀한 토론의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출생
튼튼한미래
함께해요



축사



이강덕 포항시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장 이강덕입니다.

우리 포항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포항성시화운동본부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준비한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포항으로 찾아와주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포항의 일꾼으로 섬기고 계신 김병욱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포항 성시화운동본부의 대표본부장으로 계시며 이번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성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포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철강의 도시, 해양문화의 도시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포항도 전국적인 저출생 기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며 본격적인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작년에는 대도시 중 최초로 인구수가 50만 아래로 내려가며 포항 시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청년과 현장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사업을 행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온 나라에 만연한 저출생 현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를 느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항에서도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시에서도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한다면 단연 아동돌봄 정책일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포항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강화된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질 좋은 돌봄 서비스는 지역 활성화 대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양육기에 경력이 단절되어야 했던 여성 인력이 다시 지역 산업에 투입된다면 포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는 타 지역 청년 부부들의 실거주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제한된 예산과 행정력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우리 정책 입안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인구 문제와 지역 발전에 대한 전문가이신 토론자 여러분께서 그 지혜로 우리 포항 지역을 밝혀주십시오.

포항이 지금의 저출생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나라를 지탱하는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포항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입니다.

오늘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본부의 감경철 회장님과 포항 성시화운동본부의 박성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저 출산율은 2.1명입니다.

그 숫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이미 최저 출산율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교, 세대, 계층이 모든 것을 초월한 범국민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의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국회도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출생
튼튼한미래
함께해요



축사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선출된 21대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이 이곳 포항에서 열리게 됨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두 운동본부는 각각 지역과 나라를 위해 정말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출범하여 이미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의 총재로 계신 김태영 목사님, 본부장이신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우리 포항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주 뜻깊은 단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대표본부장이신 박성근 목사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이강덕 포항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이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지도 벌써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그 문제가 체감되지 않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곳 포항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포항 시민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은 바로 미취학아동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체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항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이 600여 곳이 있었지만 2020년 377개소로 줄고 21년 345개소, 22년 296개소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0세반 아동을 들여 충원을 했음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역시 폐교된 채로 방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미취학 연령의 입학시기가 되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포항의 0세부터 6세까지의 미취학 아동 인구는 2만1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포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저출생에 대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지역소멸의 위기감을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포항에는 포항에 걸맞은 저출생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2009년과 2011년 사이, 포항에서는 급격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시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한 숫자였고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의 어린이집 숫자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어린이집의 개소를 늘리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젊은 부부 세대의 돌봄 불안을 풀어주어 그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심포지엄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큰 신뢰감이 듭니다.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 분들도 오셨고 다음세대를 살리는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관계자도 오셨습니다. 또 우리 포항시의회의원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우리 포항을 위해 귀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의 개최를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태영 총재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총재로 섬기고 있는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입니다.

포항성시화운동본부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의 큰 성공을 바라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요한 네 분의 발표자 여러분, 유원대학교 안광현 교수님, 경북대학교 이경은 교수님,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님, CTS다음세대운동본부의 정예용 과장님께 응원과 격려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제개발의 역군이라는 자긍심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깊은 애향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난해 포항시의 인구 50만이 붕괴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접해야 했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높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누군가 밝고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할 것이며 그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오늘날의 저출생과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저출생 상황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공략해 나아가야 할지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아동돌봄을 의제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동돌봄이 어떻게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돌봄이 어떻게 지역소멸을 넘어 지역 부흥과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지를 면밀한 논리와 통찰로써 이 자리에서 증명해주십시오.

포항 시민사회는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담긴 연구 결과를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토론자님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며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의 지역 사회 - 돌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심포지엄’의 큰 성공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 사회 **장헌일** 원장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발표 ①]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역임)

[발표 ②] 이경은 교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발표 ③] 김민정 의원 (포항시의회)

[발표 ④] 정예용 과장 (CTS다음세대운동본부)

Q & A 토크쇼



02

[발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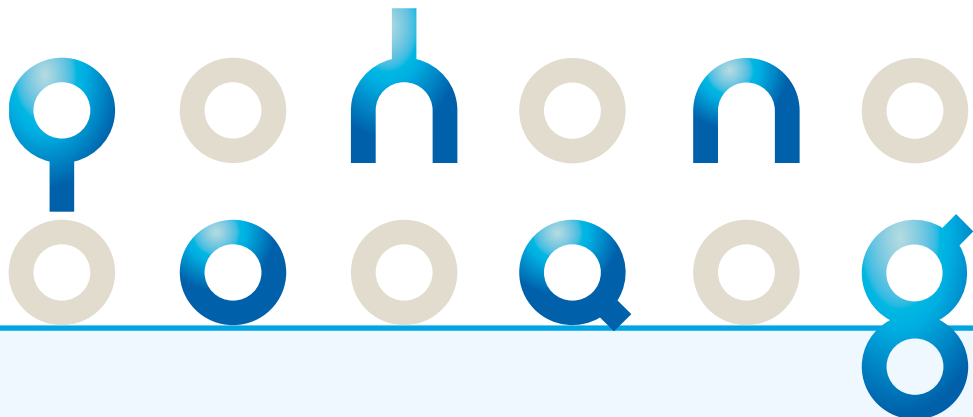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유원대학교 교양융합학부

안광현 교수

- 지속가능연구원장
- 지방자치아카데미원장
- 전) (사)공공자치학회 회장
- 전) 대통령직속 TFT 자치분권전략회의 위원
- 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장
- 전) (사)한국다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
-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ATS
- 송실대학교 행정학 박사



영유아 돌봄을 통한 지역 소멸 극복

- 저출생대책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세미나 -

안광현 교수
(유원대학교)



1. 시작하는 말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30대
미혼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비중?

• 2021년 기준

49.6%

50.4%

-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중 89곳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지방소멸의 의미?

“늙고 아플 때 돌봐 줄 사람이 있는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오는 문제의 핵심은
“**돌봄의 소멸**”

지방대학의 위기!

Why?

“남쪽 벚꽃이 피는 순서로 지방대학 소멸”



2. 저출생의 원인과 정부의 대응

1) 저출생의 원인

- | | |
|-------------|---------------------|
| 1. 높은 미혼률 | 2. 전쟁보다 더한 경쟁 |
| 3. 돌봄과 양육문제 | 4. 경제적 문제 |
| 5. 가치관의 변화 | 6.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 경력단절 |

2) 정부의 대응

- 2022년 저출생 예산 59조 원.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다수
- 보육 등 직접적인 지원책 '가족 분야' 예산 19조 원 불과
- 중구난방 예산 정비, 직접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3. 지역소멸 현황

1) 지역 인구 감소

-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인구 감소
경북(1만 6,500명), 부산(1만 3,600명), 경남(1만 3,400명),
전남(1만 3,000명) **감소**
- 2020년 기준 전체 시·군·구의 66%
출생아보다 사망자 더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
-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 감소한 시·군·구
60여 곳(26%)에 달함

3. 지역소멸 현황

2) 지방대학소멸과 지역소멸

-전국 대학 평균 신입생 충원율

2022년 87.6%,

2012년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은 8만4,578명
에서 2022년 8만7,072명으로 2,494명 증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의 원인

수도권 대학에 비해 취업에서의 어려움

3. 지역소멸 현황

3) 돌봄 사각지대 발생과 지역 붕괴

- **어린이집 : 매년 1,900곳 사라짐**

2017년 4만238곳 어린이집 (2022년 8월 현재)

3만 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줄었음

4) 소멸위험지역

- 소멸위험지역 : 전체 시군구의 49.6% (113개, '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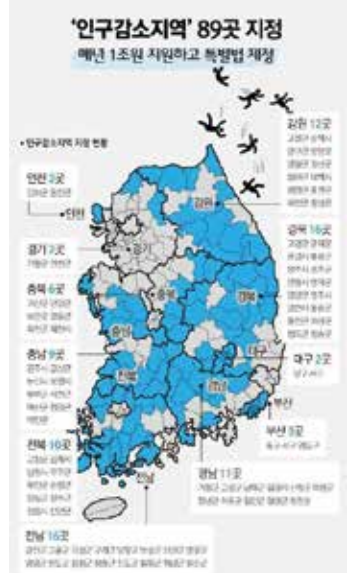
- 소멸위험지수 : 0.2 ~ 0.5 미만 '소멸위험진입지역' 68곳,

- 소멸위험지수 : 0.2 미만 '소멸고위험지역' 45곳

3. 지역소멸 현황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리스크 증가

-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 ※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49.6%) 소멸위험지역 분류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전체인구,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4. 저출생 정책평가와 외국사례 비교

1) 저출생 정부정책의 문제점

- (1) 비효율적인 예산활용
- (2)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된 경제적 불확실성
- (3) 사회구조적 대응 미흡과 인식 변화의 한계

2) 외국의 대응 정책

- 프랑스를 포함한 선진국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2000년대에 들어 정비례로 바뀜.
- 제도와 인식이 개선되면서 일하는 여성의 숫자와 아이를 낳는 비율이 함께 올라감.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저출생 정책방안

- (1)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2) 전문조직과 전문가 양성
- (3) 섬세한 소규모 사업들
- (4) 저출생 기본정책의 내실화
- (5) 가족지원의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
 - ①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화
 - ② 아동수당 지급대상 17세까지 확대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저출생 정책방안

- (6) 해외 정책의 도입
 - ① 프랑스 : 자녀수에 따라 세금 차등 부과
 - ② 스웨덴 : 아동 단위의 가족정책과 젠더정책·고용 정책 명시화
 - ③ 일본 : 일·양육의 兩立과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증시
 - ④ 싱가포르 : 가족 지원과 일·가족 兩立 지원 추진
 - ⑤ 헝가리 :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

5. 저출생 정책방안과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2) 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역소멸 대비

(1) 지방자치단체 돌봄정책

- 지역 간 인구쟁탈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지역 간 인구경쟁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
- 돌봄의 국가책임을 지역책임으로 구체화하면 효과가 더 클 것
- 돌봄 시범도시 시행

(2) 지역의 균형발전 개혁

(3) 양육 지원 정책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구조 측면 - 시설 공급 측면

(4) 지방소멸대응기금

(5) 출산장려운동과 종교단체 영유아돌봄 서비스

3) 저출생 문제 해결 성공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6.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

- 지역의 일자리 창출, 특히 젊은 여성(결혼연령층)의 일자리 해결
- 교회 및 종교시설 내 돌봄 서비스 확대할 걸림돌 해결
- 사회적인 합의 도출 및 관련 법규개선과 시설비 지원,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필요
- 지역의 교회와 지방자치단체 상생 위해 협력 공동 육아, 어린이교육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마을돌봄 실시**
-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문제라는 인식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 필요**
- 인구소멸,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위기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출생 장려 운동과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 함께 동참하여 위기극복**

[발표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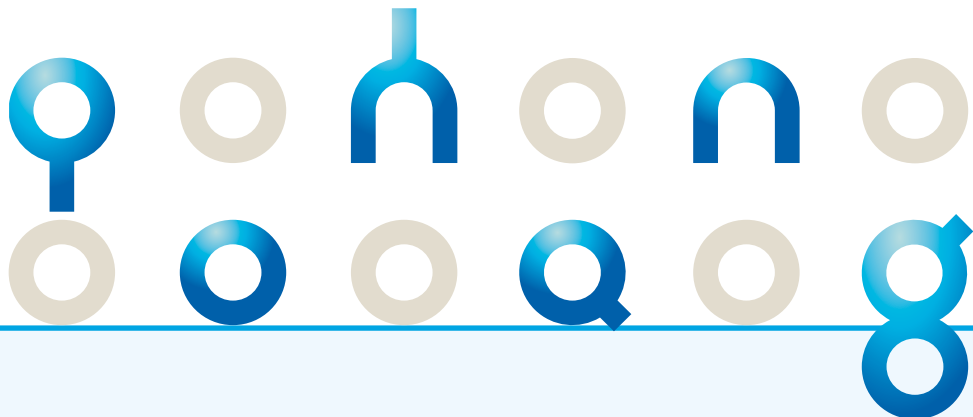
저출생 시대 지자체의 아동돌봄 정책 방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 교수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전임강사)
- 이진소아과 영유아발달클리닉(소장)
- 덴마크 Aarhus uni(연구원)
- 한국여성인력개발원(원장)



저출생 시대 지자체의 아동돌봄정책 방향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

목차

1. 방과 후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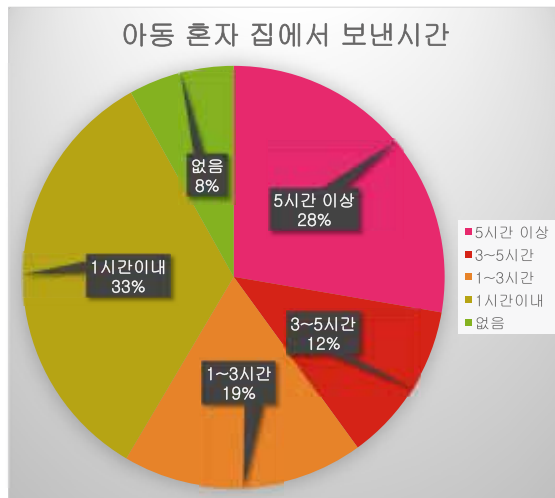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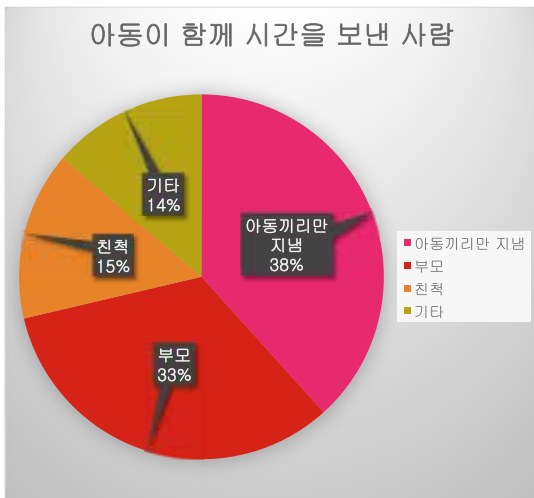
2. 경북지역 방과 후 아동돌봄

3. 대구시 방과후 아동돌봄

4. 지자체 아동돌봄정책의 변화 방향

1. 방과 후 아동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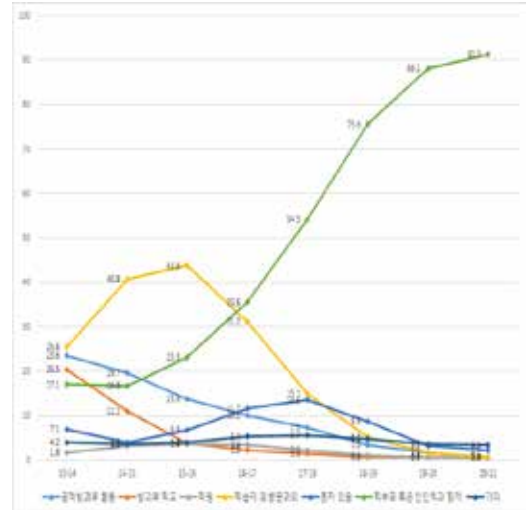
1) 아동돌봄의 위기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0), 코로나 19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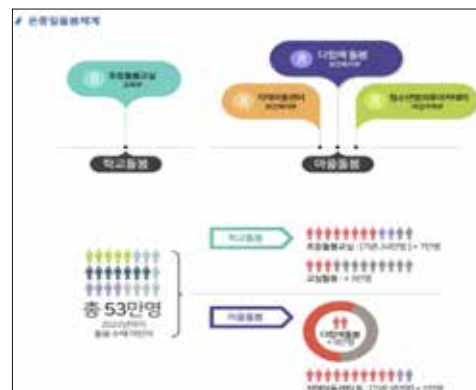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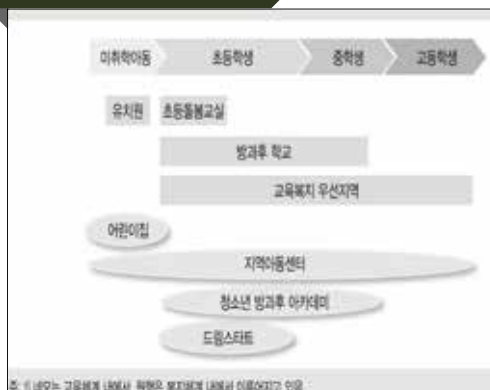
2) 돌봄 공백기간

- 돌봄 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주로 오후 4~6시 사이 학원 또는 돌봄 종료 후 부모가 퇴근해 귀가할 때까지 혼자 있는 시간인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공적 방과 후 돌봄 이용률은 13~14시까지 23.6%였다가 16시를 넘어가며 11.7%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16~17시부터 학부모 혹은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35.6%를 차지함
- 16시부터 18시 사이에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이 불충분하여 친인척이나 사교육 시장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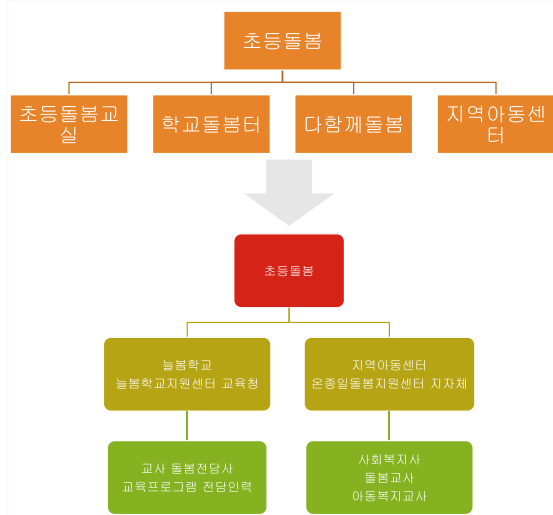
3) 기존 아동돌봄 체계

(1) 아동 돌봄의 공적체계



4) 늘봄 학교에 따른 공적돌봄체계

- 초등돌봄교실(이용 인원 약 30만명)과 지역아동센터(정원 약 12만여명)의 비중이 가장 큼
- 학교돌봄터(정원 1천여명)와 다함께 돌봄(1만7천여명)은 아직 시행초기 단계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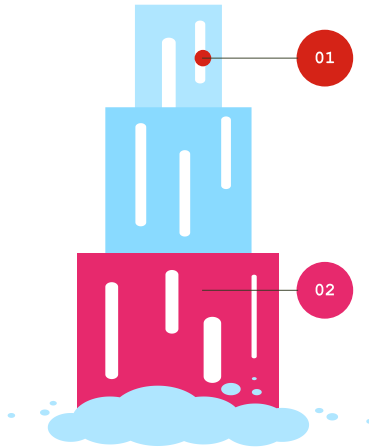


출처: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정책국회 포럼(2023)

5) 아동돌봄 체계의 한계

- 6~12세의 초등학령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약 12%에 불과
- 2020년 방과후돌봄 실태조사 결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23.1%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 대상선정기준 및 공급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 상당수의 아동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거나 민간 영역에서 고비용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대상선정 기준을 '소득' 중심에서 '필요' 중심으로 전환 필요함
-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긴급돌봄 사업은 일부의 아동들만 이용하였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아동(장애아동, 이주민 아동, 맞벌이 가정의 아동,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은 공적 돌봄체계에서 소외됨
 - 아동이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동시설'이라는 낙인문제가 있음

5)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아젠다



• 공적돌봄의기능과역할변화

- 각각의 돌봄서비스가 부처별 기존 돌봄 인프라의 서비스의 분절성으로 인해 이용자는 혼란을 경험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공백이 없는 공적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성
-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아동을 돌보는 마을 돌봄 체계 구축 필요함

• 다양한문제발생

- 교육격차발생
- 아동학대문제
- 스마트폰(인터넷)과 의존
- 아동의건강문제

6) 돌봄서비스를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점

신뢰성

부모로서 가장 먼저가지는 고민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접근성

교육공간 제공, 안전문제 해소

전문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전문기관과 연계)

7) 지자체 중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서울 (구로구)

• 다함께 행복한 ‘온(溫)’ 돌봄공동체 만들기

- (지역 여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고 서민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방과 후 돌봄 수요가 높으나 돌봄 공급기관이 부족하고 구내 도서관이 많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 (사업내용) 통합돌봄지원센터, 15분 거리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
- 다함께 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이외에 주거지역의 가까운 작은 도서관, 마을 활력소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주민이 직접 돌보거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민간단체 선정하여 ‘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를 27개소 운영하고 있음
- 2022년까지 총 50곳으로 확대 예정
- 구로구 온종일 돌봄센터는 아동의 거주지 또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예: 아이들터, 푸른 꿈카페, 들레길 작은 도서관 등)

경기 (시흥시)

• 함께 키우는 시흥아이

- (지역 여건) 구도심과 신도심 공존하여 권역별 (북부, 중부, 남부) 맞춤 돌봄필요함.
- 북부 : 중노년층 ↑, 중부: 아동 인구 ↑, 남부: 외국인·청년 ↑, 출생률 ↑
- (사업내용) 평생교육도시 사업 등으로 양성한 지역 내 인력(마을 강사, 학교 강사 등 250여 명) 활용, 권역별 거점 초등돌봄센터(아이누리 돌봄센터), 주민 대상 돌봄 공모사업(아이누리 돌봄 나눔터) 추진 및 시흥형 돌봄 모델을 운영함.
- 자체 개발한 시흥형 돌봄 모델(8개)을 통한 서비스를 확대함.
- 노인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마을학교형, 공공도서관형 및 작은도서관형, 방과 후 마을학교형, 체육회 마을학교형, 청소년 전용공간(청소년수련원)형
- ❖ 시흥시만의 돌봄 브랜드 ‘아이누리’를 개발함.
- 아이누리 돌봄 나눔터를 운영함(자체 사업).

충남
(홍성군)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도농복합형 돌봄 생태계 구축**
- (지역 여건)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지역과 기존의 농촌 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임(농산어촌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추세)
- (사업내용) 읍 지역은 교실을 활용, 신도심은 아파트단지 내 돌봄센터 설치·운영(LH 무상임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틈새 돌봄을 지원함
- 읍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홍성초, 홍주초 등)의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함
- LH 아파트 단지 내에 ‘아동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함

전남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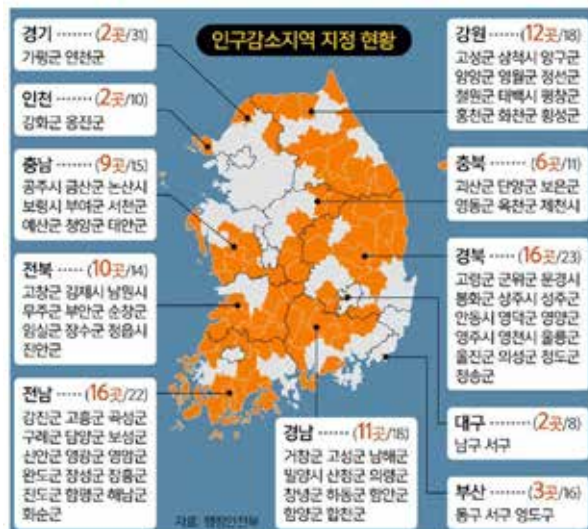
- **“해아 돌봄 센터” 운영**
- (지역 여건) 도농복합도시(읍 1, 면 6, 동 5)이며 평균연령 39.5세로 전국 대비 연령층 젊음
- (사업내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연계, 지역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돌봄센터를 운영함- 돌봄 취약지역(읍면)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도시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임
- **마로니에 돌봄센터**
- 광양제철소에서 리모델링을 통해 오후 7시까지 보살핌을 제공함
- **가온누리 돌봄센터**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함(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재배치)
- 초등 이웃 돌봄 Hero
-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웃집 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간단한 학습을 제공함.

2. 경북지역 방과 후 아동돌봄



1) 지역소멸과 돌봄위기

- 지역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연스럽게 지역 **돌봄의 소멸**
-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유럽국가들을 보면 사회적 **돌봄 시설의 확대와 아빠의 돌봄 채널 확대**라는 공통점이 있었음
- 영유아에 비해 미비한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확대



[이미지 출처 -세계일보]

2) 경북지역 돌봄모델

전략과제	주요 내용
지역유형별 돌봄체계 모델 운영	- 지역 유형별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형, 지역사회 자원 개발형, 공공서비스 제공형) 특성에 따른 돌봄체계 구축 및 이음돌봄 강화
돌봄서비스 추천체계 구축·강화	- 경상북도 마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 마을 돌봄 추진체계별 역할 및 기능 강화 - 경상북도 돌봄협의회, 시군 돌봄협의회, 마을 돌봄협의회 실질적 운영 및 활성화 - 마을 돌봄협의회 상시적인 소통시스템 마련,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 협의회 운영 내용 모니터링 - 도 단위 마을 돌봄추진단 운영, (장기)권역별·시군별 마을 돌봄추진단 운영 - 경북도청-경북교육청, 지자체-교육지원청, 마을 돌봄터-초등학교 유기적 연계·협력 강화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 마을 돌봄터 확충 방향 - 마을 돌봄터 운영 형태의 다양화(공급확대형, 이음돌봄지원형, 거점기능형) - 마을 돌봄터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인력 확보 방안 모색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 아동 돌봄서비스 수요·공급의 적정성 강화 - 마을 돌봄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등·하원 정보 알림서비스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안심이동서비스 운영 - 긴급돌봄 지원 강화
전문인력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운영	- 마을 돌봄터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마을 돌봄터 코디네이터 직무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정례화

자료: 진혜민(2020), 경북형 종합 돌봄체계 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 경북지역 돌봄모델

지역아동센터-학교 밀착연계형 (지자체-교육청 연계형)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이외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 방학 중 돌봄 공백 시 같은 마을의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의 아동들을 센터 내에서 함께 돌본다.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굿센스 사업(마을밀착형 돌봄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직장 내 돌봄터 운영형

경북 문경제일병원(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의 직원 사택 내 '맘편한 돌봄공부방' (2019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직장 근무자의 초등 1~3학년 자녀의 초등 돌봄, 입원 환자의 자녀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3) 경상북도교육청 늘봄교실 운영교 현황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소규모 학교 21개교를 포함한 총 41개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운영
- (경북) 초1 새싹돌봄(3월), 햇님식(간편식) 제공하는 아침돌봄 운영, 교육청-지자체 마을돌봄 연계 강화
- 과대·과밀학교 등 인근 학교 초과 수요 공동대응을 위한 '23. 하반기 교육청 주관 거점형 돌봄기관 7개소, 총 200억 원 신규 구축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로 거점형 '토요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개교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아침돌봄(7:30~)과 간편식을 제공하며 돌봄교실 간식과 방학 중 중식도 무상으로 지원

(35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5개소가 참여하고 굿네이버스 경북지부가 운영하는 마을밀착형 '굿센스' 사업을 통해 주말,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간 연계. 협력도 강화

< 시범교육청별 늘봄학교 선정 현황 >

구분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계
계획(개교)	20	20	80	40	40	200
선정(개교)	30	20	80	43	41	214

6) 포항시 늘봄교실 운영교

교육지원청	학교명	초1 에듀케어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운영 기간	신청 기간		아침	저녁 (~19시)	저녁 (~20시)	일시	특세 (연계형)
포항	포항대흥초	3.6.~3.31.	2.27.~3.3.	로봇, 코딩, 배드민턴, 바이올린 등	-	-	0	0	0
	포항송도초	3.13.~3.31.	3.3.~3.10.	컴퓨터, 과학실험, 미술, 드론, 요트 등	0	0	-	0	0
	포항원동초	3.8.~3.17.	3.2.~3.6.	음악줄넘기, 보드게임, 코딩, 배드민턴 등	-	0	-	-	-
	흥해초	3.6.~3.24.	3.2.~3.5.	코딩, 놀이체육,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 등	0	0	-	-	0
	구룡포초	3.6.~6.30.	전체수용	드론, 코딩, 배드민턴, 축구 등	-	0	-	0	-

3. 대구지역 방과 후 아동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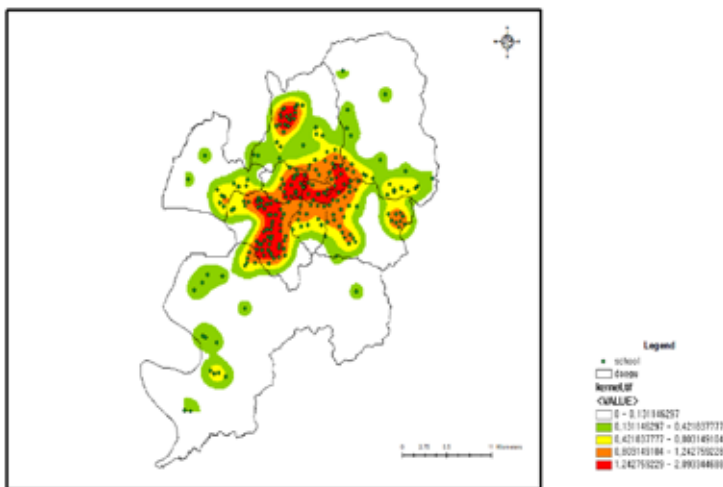
1) 대구시 돌봄 현황

구분	설문조사 참여 인원(A)	현재 공적 돌봄 이용 가구(B)	향후 공적 돌봄 이용 의사 없음(C)	필수수요 (B-C)	비율 (B-C)/A
중구	67	20	2	18	26.9%
동구	120	43	10	33	27.5%
서구	71	25	9	16	22.5%
남구	26	6	0	6	23.1%
북구	238	80	12	68	28.6%
수성구	159	39	9	30	18.9%
달서구	163	53	8	45	27.6%
달성군	170	54	17	37	21.8%
대구시(전체)	1,014	320	67	253	25.0%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초등학생 인구 수 (전 학년)	31,283명	31,170명	31,379명	31,354명	30,194명	28,539명
돌봄 프로그램 수 (수용인원)	178개소 (3,725명)	218개소 (4,563명)	258개소 (5,400명)	298개소 (6,237명)	338개소 (7,074명)	377개소 (7,877명)
필수수요	8,634명	8,603명	8,661명	8,654명	8,334명	7,877명
연차별 공급계획	-	+40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39개소
필수수요 대비 공급률	43.1%	53.1%	62.3%	72.1%	84.9%	100%

- 돌봄프로그램의 수 산정에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포함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는 제외함.
- 필수수요 : 대구시 달서구의 필수수요 27.6%를 적용하여 이용 희망 예상 인원을 산출함.
- 공급률 = [돌봄프로그램 수용인원/(연도별 예상 초등학생 수 × 27.6%)] × 100
- 프로그램 1개소의 정원은 2020년 현재 달서구 돌봄프로그램 수용인원의 평균(20.93명)을 산출하여 적용함.

대구시 돌봄기관 밀집도



2) 대구형 온종일돌봄체계모델

대구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출처: 대구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2020),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3)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돌봄 제공 모형

(1) 학교 상주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모형

■ 운영방식

-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
-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종료후, 아동들이 학교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의 사각 시간대 해소

■ 특징

- 지자체와 도 교육청이 업무협약 체결하여 학교내에 지역아동센터 설치
- 학교안과 내부통로로 연결, 학교 공간은 이용하지만, 생활은 분리
-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수월하고 학교 시설활용 및 안전확보에 유리

■ 운영고려지역(대구시 달성군)

- 대구시 달성군 및 동구 농촌 지역의 경우, 집과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간의 접근성이 낮은 곳이 존재함
-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는 시간의 단축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상주형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3)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돌봄 제공 모형

(2)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틈새돌봄 모형

- **운영방식**
 - 초등돌봄학교 프로그램 종료 후, 야간시간대(오후 5시~8시) 돌봄수요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식
 -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프로그램과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의 사각시간대 해소

- **특징**
 - 1,2학년 방과후 연계형 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
 - 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센터에서 차량 확보 및 스쿨버스 한시적 운영

- **운영고려지역(대구시 서구, 북구)**
 - 서구: 아동인군대비 지역아동센터(33개)의 보급률과 다문화 아동비율(8.79%)이 가장 높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비율(8.6%)이 남구 다음으로 높은 지역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돌봄 사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지역
 - 대구시 북구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41개)이므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틈새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4) 대구시 시범사업 틈새돌봄 성과평가

(1) 대구 방과 후 돌봄 공급률비교

시군구 (7~12세 아동 인구 수명)	돌봄 기관 현황			아동 현황	필수수요 (공급률)	2019년 11월 기준
	구분	개소수	정원	이용 아동 수		
대구광역시 (129,410)	초등 돌봄 교실	590	11,906	11,906	32,353명 (55.4%)	
	지역아동센터	199	5,551	5,161		
	다함께돌봄센터	1	20	20		
	방과후아카데미	14	460	460		
	합계	804	17,937	17,547		

시군구 (7~12세 아동 인구 수·명)	돌봄 기관 현황			아동 현황	필수수요 (공급률)	2022년 10월 기준
	구분	개소(학교)수	정원	이용 아동 수		
대구광역시 (121,485)	초등 돌봄 교실	229	12,200	12,065	30,371명 (64%)	
	지역아동센터	202	5,668	5,247		
	다함께돌봄센터	4	99	76		
	방과후아카데미	19	510	510		
	틈새돌봄	120	960	1,038		
	합계	574	19,437	18,936		

(2) 방과 후 틈새돌봄 실적비교

틈새돌봄 서비스기관 및 이용자 현황(2021년)

		구·군별 시범사업 기관 현황								
구·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합계
시범사업기관		5	6	3	11	2	3	7	3	40
돌봄 서비스 현황	방학 돌봄	5	6	3	11	2	3	7	3	40
	야간 돌봄	0	2	1	3	1	0	1	0	8
	주말 돌봄	0	5	1	8	0	3	3	1	21

성별, 학년별 이용자 분석

구분	미취학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이용자	31		53		39		38		24		16		13		21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	12	28	25	25	14	17	21	11	13	6	10	6	7	112	102

- ▶ 틈새돌봄 서비스기관 40개소, 정원 200명, 이용자 214명, 저학년의 비율이 70% 이상, 맞벌이가정 70.35%
- ▶ 사업비 지출현황 : 1억 (사업운영비 14,707,831원, 기관운영비 63,093,500원, 조사연구 13,292,740원, 홍보비 8,161,700원, 기타 744,229원)

4. 지자체 방과후
아동돌봄정책의
방향



1) 아동돌봄의 추진과제

비전

-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목적

- 돌봄영역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 구축
- 공급자 중심의 파편적, 비효율적인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해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새롭게 구축 필요함

2) 아동돌봄 정책 방향

첫째, 놀봄학교를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둘째, 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종교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넷째, 공간과 설비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면 이들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시군구 단위의 온종일 돌봄 운영사례

유형	설명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지자체(구청)가 학교 공간에서 마을의 인적 자원(지자체가 양성했던 마을 교사 등)을 활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형태이다. - 서울시 도봉구, 중구 등 : 중구의 경우 흥인초(3실) 내 활용 가능 교실을 이용하여 '모든 아이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한다(돌봄 인력,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등).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내에 시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한다(방과 후 8시까지, 방학 중 돌봄 실시). - 경기도 성남시 시립 도당지역아동센터 4개소(분당동, 성남동, 양지동, 상대원동)를 운영한다. • 청솔초등학교 내 시립 도당지역아동센터는 도당청솔지역아동센터로 한다. -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먼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 학교 후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학교 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가능하다.
민 주도-관 지원의 민-관 협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가 교육부 지원을 받는 방과 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를 위탁·운영하는 형태이다. •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가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한다.

유형	설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으로 시작되어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형태이다. • 대구시 방과 후 마을학교 협동조합 '동지' (주민자치사업 지원)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수행지원)는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2020년 공모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형 지역아동센터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고, 일정 운영 기준을 충족(공공성 확보)하는 시설에 대해 조정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공동육아 부모협동조합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의 단순 참여를 넘어, 운영위원회, 방모임 등을 구성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육아,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수행한다. - 송파파란하늘방과후(파란하늘공동체교육사회적협동조합), 계수나무방과후 등 전국에 2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 부모협동어린이집이 법제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부모협동조합형) 공동육아방과후' 모델 등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다.

유형	설명
작은 도서관 활용 돌봄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초등 틈새 돌봄 • 접근이 편리한 거주지 인근의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초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도서관별 돌봄 운영시간 자율선택, 돌봄 인력 비용 지원, 간식비 지원 등 부모의 요구가 높은 시간대의 틈새 돌봄을 지원한다. - 2019년 경기도 내 48개소 작은 도서관에서 400여 명의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경기도는 다양한 형태의 전방위적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아파트단지, 주민센터 등 활용 돌봄 운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유휴공간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학부모와 주민이 직접 돌보거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모델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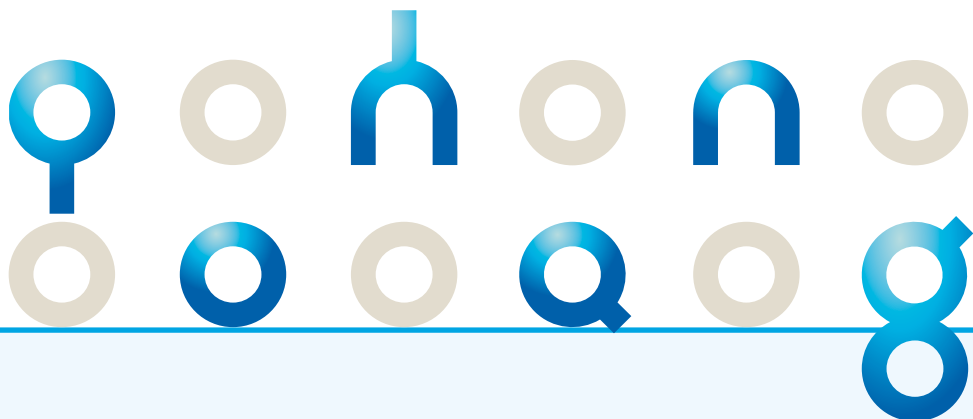
[발표 ③]

저출생 시대의 지자체의 아동돌봄 정책 (사례중심)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

- 이화여자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 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I. '저출산 닷' 에 걸린 포항시

01

포항시 저출산 '심각' 미취학 아동 인구 감소

「3년 후 초등학생 수 3천 500명 감소 전망」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포항시 미취학 아동의 급격한 감소가 초등학교 폐교 등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50만명이 붕괴되고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으면 10월 49만 7천546명으로 집계

이중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 2만1천61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는데 그쳐 향후 초등학생과 학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앞으로 3년 뒤에는 초등학생의 수가 3천5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는 한해 동안의 출생아를 웃도는 수치로 산술적으로 한 학년 이상이 사라지는 수치



출처: 영남경제 2022.11.23.
(www.ynnews.kr)

II.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01

사업근거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II, 202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행(아이돌봄 서비스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II. '아이돌봄지원사업'

01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II, 2022년」

이용대상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1회 2시간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 연960시간 이내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가사를 추가한 형태임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1회 3시간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 월80~200시간이내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일시적인 양육, 안전, 신변처리, 놀이활동 등 지원
이용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 11,000원/ 시간제 기본형 11,00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 13,200원(아간, 휴일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추가)
이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다 형(정부지원 서비스를 받는 경우) ① 아동연령(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등 양육공백,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기준 ④ 가구소득(' 가 ~ 다 ' 형) 충족 → 소득 유형 결정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라 ~ 행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정부지원서비스 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근제서비스(-) 영아종일제: 변경신청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말일까지 제공 ◆ 신규자격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시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근제서비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 지원 불가-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시간:(보육시설) 평일 09~16시(유치원) 평일 09~13시

IV. '다함께돌봄센터'

01

주요내용

정의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Ⅱ, 2022년」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모든 아동

운영시간

주5회(월-금) 학기중 11:00-20:00 / 방학중: 09:00-18:00

내용

상시·일시 돌봄 / 돌봄프로그램(놀이, 학습, 특별활동 등) 운영

수행인력

4명~5명(센터장1명, 코디네이터명, 돌봄교사2명~3명)

02

운영현황

1호점(구룡포꾸러기마을돌봄터)

- 구룡포읍 호미로 193
- 2019. 4. 10. 개소
- **면적 237㎡**
- 정원 30명
- 포항시구룡포아동복지위원회의공동운영

2호점

- 우현풍림아이원 아파트 내
- 2021. 6. 3. 개소
- **면적 242.5㎡**
- 정원 33명
- 모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위탁

3호점

- 연일읍 연일중앙로 38
- 2022. 6. 2. 개소
- **면적 288㎡**
- 정원 45명
- 시케이여성위원회 위탁

IV. '다함께돌봄센터'

03

운영예정

4호점

- 2023. 7. 예정
- 송도동 254-104
- 면적 102㎡
- 정원 20명
- (사) 효실천 위탁

5호점

- 2023. 7. 예정
- 흥해읍 중성로 52
- 면적 130㎡
- 정원 25명
- 포항YMCA 위탁

04

참고

» 다함께돌봄센터 VS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근거
 - 자격
 - 유형
 - 주체
 - 방식
 - 대상
 - 내용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자체 직영 또는 민간위탁
만6~12세 모든 아동(소득무관)
방과후 돌봄 및 상시 일시 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법 제5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아동복지시설
개인 법인 직접 운영
지자체 외의 자는 시·군·구청장
18세 미만 초·중·재학 아동(정원 50% 이상 우선돌봄아동)
방과후 돌봄 석식(방학중 중식) 제공

V. 긴급아동보호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01

추진목적

- ◆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함
- ◆ 가정에 육아공백과 긴급 상황 발생 및 입원아동 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동보호사를 파견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V. 긴급아동보호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02

추진배경

- ◆ 남녀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직장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각한 수준
 -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
 - ▲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직장맘의 출산기피 현상 지속
 - ▲ 직장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 ▲ 경력단절 후 재취업은 전문성과 무관한 일자리와 경제적 손실로 연결 ⇒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이 급선무
- ◆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여성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함
- ◆ 다양한 가족 상황을 고려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돌봄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따른 대책 필요 ⇒ 촘촘한 돌봄 서비스 강화가 요구됨

V. 긴급아동보호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03

이용대상 및 시간

이용대상

-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 직장대디, 임산부(신청일 당시 포함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 배려, 서비스 신청 가능
- 다른 양육자가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
- 단, 긴급아동돌봄 이용 시 만36개월 이하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시간

- 긴급아동돌봄 : 최소 2시간 ~ 최대 6시간 / 07:00 ~ 20:00
- 신청시간은 1시간 단위로 가능
-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의 경우 2시간 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종료시간 : 약속된 이용시간 마감(서비스 종료 시간 엄격히 준수 요망)
- 토·일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평일과 동일 적용

9

V. 긴급아동보호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04

아동보호사 연계

1. 아동보호사 파견서비스 제공

1) 아동보호사: 12명

2) 긴급아동돌봄 서비스 내용

※ 병원 픽업, 혼자있는 아동 돌봄,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를 복합·연계하여 신청 가능

가) 병원 픽업 및 진료대기, 귀가 서비스 제공

나) 혼자 있는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다)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 제공

10

V. 긴급아동보호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

05

추진성과

년도	이용실적	년도	이용실적
2017.7~	49건	2021	394건
2018	191건	2022	312건
2019	190건	2023.4월	210건
2020	373건		

※ '21.11. 저출산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행정안전부)

※ '22. 4.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정(행정안전부)

VI. 시간제긴급보육서비스

01

목적 및 주요내용

목적

야간-토-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보육서비스로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등에 갑작스런 보육공백 시에 긴급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통한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주요내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포함시영유아보육조례 제32조
- 사업내용: 7세 이하 영유아 대상 평일 야간 및 토·공휴일에 시간 단위로 긴급 보육 서비스
- 추진배경: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맞춤형 보육환경 제공
 - ⇒ 기존 돌봄환경: 아이돌봄서비스(가정방문), (국비)시간제 보육서비스(평일운영시간내)
 - ⇒ 아이돌봄서비스와 (국비)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포항형 영유아돌봄체계 구축

VI. 시간제긴급보육서비스

02

추진현황

시간제 긴급보육 서비스 개시

- 2022년 9월 30일 개시
- 제공기관: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 <시간제긴급보육 공간 별도 마련>

운영방법

- 야간 및 토·공휴일에 긴급보육수요 발생 시 보육서비스 제공
- 운영시간 : 평일(18:00~22:00), 토·공휴일(09:00~18:00)
⇒ 야간 및 토·공휴일 등 취약시간(어린이집, 유치원 미운영시간)
- 이용시간 : 4시간/1일, 80시간/월
- 별도 담임교사 3명 채용, 이용아동 안전공제회보험 가입으로 안전관리 철저

주요 추진내용

- 경상북도 내 최초 시행
- 2022년 1개소 시험 운영
- 2023년 1개소 남구지역 추가설치 예정(6월 공모중)

13

VI. 시간제긴급보육서비스

03

운영실적

포항형 시간제 보육 이용률(북구청 어린이집)

구분	평균이용자수	최고이용자수	(누적)이용자수	(누적)이용일수	비고
평 균	3.0	11	590	197	
2021년	10월	2.3	4	47	20
	11월	2.4	6	64	26
	12월	3.0	7	86	28
2022년	1월	2.7	7	70	26
	2월	4.6	11	106	23
	3월	3.0	11	67	22
	4월	2.7	10	69	25
	5월	3.0	9	81	27

14

VII. 포항시 가족행복센터 건립현황

01

추진개요

- 인구감소 및 도심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육아, 가족상담, 돌봄, 여성창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확대되는 가족사업 수행과 증가하는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지역 어디서나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이 시급하여 생활SOC복합화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고 2019년 10월에 최종 선정되어 사업 추진.

02

사업개요

- 위치: 포항시남구송도동254-100외6필지(해양산업플랫폼건립부지내)
- 사업비: 6,845백만원(국1,550도458시4,837)
- 사업기간: 2020년~2022년(3년)
- 건축규모: 연면적2,200㎡(지상3층)/전용면적1,980㎡
- 입주시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마더센터

15

VIII. 포항시 가족센터 현황

01

센터현황

시설유형	위 치	시설규모	센터 조직(명)			위탁기간	비고
			계	센터장	직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포항시 북구 선착로18-10 (대신동)	494.46㎡ (지상3층)	37	1	36	2021.1.1.~ 2025.12.31	

02

민간위탁현황

- 2021. 1. 1 ~ 2025. 12. 31.(5년간)
- 수탁자 :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16

VIII. 포항시 가족센터 현황

03 센터연혁

- 2006. 10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2007. 0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 2007. 04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실시
- 2008. 01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실시
- 2008. 05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시
- 2009. 08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 실시
- 2012. 03 가족보듬지원서비스 실시,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 실시
- 2012. 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청사내 이전
- 2012. 08 위덕대학교 위탁
- 2012. 10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개소
- 2014. 08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사업 실시
- 2015. 01 포항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위덕대 산학협력단)
- 2017. 01 가족행복드림사업 실시
- 2018. 01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 2021. 01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사회복지법인 기쁨의복지재단)

VIII. 포항시 가족센터 현황

‘22년 예산현황 【8,821,237천원(국 4,099,771 도 1,613,584 시 3,107,882)】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센터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775,760 (국50,도15,시35)	4,634,958 (국70,도9,시21) 2,200,000 (도50,시50) 26,400 (도30,시70)	165,620 (국50,도15,시35)	109,692 (국50,도15,시35)	58,800 (국100)	850,007 (국40,도16,시44)

VIII. 포항시 가족센터 주요사업내용

01 아이돌봄지원사업

사업개요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미를 파견하여 일시적인 양육, 안전, 신변처리, 놀이활동 등 지원
이용요금	◦ 시간제: 종일제 10550원/1시간(야간, 휴일 50%추가) ◦ 질병감염 12,660원
정부지원 대상자	◦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이용대상 및 시간	◦ 시간제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이상 신청, 정부지원 시간 연840시간 이내 ※ 종합형 :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가사를 추가한 형태임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이상 사용, 정부지원 시간 월200시간이내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	◦ 정부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소득유형 결정 후 센터로 연계신청 ◦ 본인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2021년 사업실적	◦ 123,842건(818 가정) 19

VIII. 포항시 가족센터 주요사업내용

02 공동육아나눔터 현황

설치모형	위 치	시설규모	개소일	운영인력(명)			비고
				계	전담	보조	
맞벌이가구 방과후돌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99 (삼구4차 커뮤니티센터 내)	77.6㎡ (23.5평)	2018.12.28	2	1	1	
맞벌이가구 방과후돌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83 (원동부영1차 관리동 내)	110.7㎡ (33평)	2020.11.9.	2	1	1	

VIII. 포항시 가족센터 주요사업내용

03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 현황

설치모형	위 치	시설규모	개소일	운영인력(명)		비고
				계	전담	
생활형SOC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585번길 8 (포항오천교회 예담관 3층)	43.71㎡ (13평정도)	2021.2.26	1	1	

감사합니다

[발표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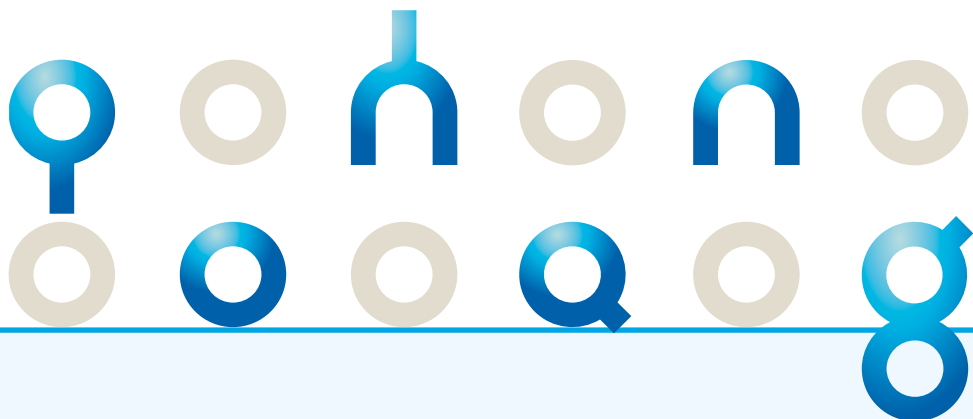
저출생 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정예용 과장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복지전공
- 전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현 CTS다음세대지원센터 과장



저출생시대 지역사회 교회의 아동돌봄 역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정예용 과장

공적돌봄 체계 – 온종일 돌봄

〈0~12세 공적돌봄체계〉

연령 시간	영유아(315만명)							초등학생(267만명)				
	0	1	2	3	4	5	6	7	8	9	10	11
-13시	• 어린이집·유치원(215만명)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 아동수당, 양육수당							• 학교 정규수업(9시~13시~15시) • 초등돌봄교실(24만명)				
13시~19시												
19시 이후												

(자료=온종일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18.4))

공적돌봄 체계 - 돌봄사업의 불일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동육아 나눔터
대상	초등 1~6학년	만18세 미만의 초등·중학생	만 6~12세	초등4~중등3학년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법적근거	법적근거 없음 (교육부 고시로 운영)	아동복지법 제50, 52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사회보장기본법 제5, 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선정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1~3학년 중심)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80%이상	소득수준 무관	우선지원대상 : 저소득층, 한부모 등	맞벌이·비맞벌이 가정 모두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지역사회 어린이집의 위기

어린이집이 매년 1900곳씩 사라진다...



2017년 4만238곳이던 어린이집
2022년 8월 현재 3만1099곳으로
4년 8개월 동안 9139곳 줄었다.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원인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기조!!

전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446곳 → 554곳으로 증가 ('17 → '21)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어린이집 위기 - 돌봄공백초래

어린이집이 사라진다...



저출산에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어린이집 줄폐업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



↓
돌봄 공백 지역 발생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초등돌봄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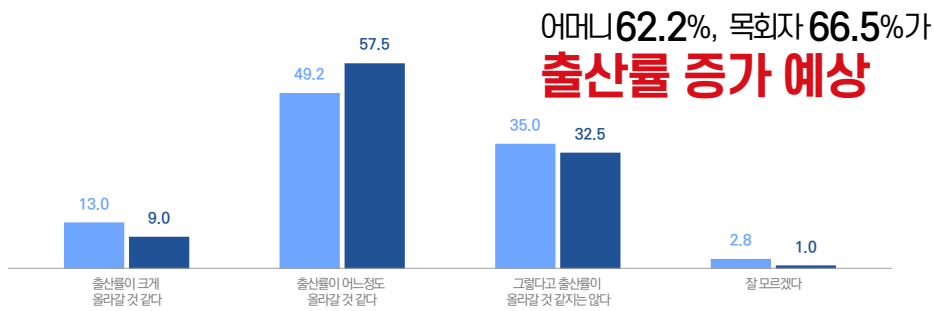
초등학생 학부모 '공포의 3월'

초등 1학년 빠르면 오후 1시 하교
2~4월 육아휴직·단축근무자 몰려
방과후·돌봄교실 탈락뎀 되사 고민

서울신문(2023. 3. 28 일지)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믿을 만한 보육 시설 확충 시 . . .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유형

□ 영유아돌봄

- 어린이집, 유치원
- 공동육아나눔터

□ 그외

- : 아기학교 프로그램
- 실내놀이터
- 장난감 도서관 등

□ 초등돌봄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 마을학교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토요 문화프로그램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사례 - 서울 광현교회

- 국공립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 지역청소년센터
- 아동청소년 대상
 - 문화프로그램
 - 동아리 활동 운영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사례 - 인천 주안장로교회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 다함께돌봄센터
- 아이돌보미서비스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사례 - 김포 두란노 교회

- 아기학교 프로그램
- 실내놀이터
- 지역사회 어린이날 축제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사례 - 안동 서부 교회

- 다함께돌봄센터
- 실내놀이터
- 장난감 도서관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형 돌봄 사례 - 의성 탐리 교회

- 지역아동센터 공간 제공
- 마을학교 운영
- 마을축제 주도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에 드리는 제안

- ❖ 교회형 돌봄사업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헌신하는 차원으로 접근
 - »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의 공적 책임 역할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
 - » 지역사회 특성을 파악, 이를 반영하여 필요가 적절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 맞춤형 부부 대상 돌봄 필요
 - 다문화 가족안에서 아동 돌봄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교회에 드리는 제안

- ❖ 먼저, 지역사회를 섬김에 있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 모색
 - >> 자치구, 정부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
- ❖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돌봄 기능의 강화 필요
 - >> 단순 돌봄이 아닌 가정사역 차원의 돌봄사역으로 담아내는 부분 필요
 - >> 부모 교육, 상담

CTS 다음세대지원센터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CTS기독교TV)

문의: 02-6333-1166 / 6333-1116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포럼

발행일 2023년 6월 29일

발행인 감경철

발행처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주)기독교텔레비전

제작부서 CTS다음세대운동본부 TEL _ 02.6333.2502 happyborn.kr

디자인·인쇄 우성프린테크 TEL _ 02.2278.9260

© 2023 CTS다음세대운동본부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지역사회 돌봄 자료집>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책자의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원고는 저자들의 개인의견을 서술한 것이므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